

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 25억원의 민·관 공동 기술개발자금 조성 등 동반성장 선도 -

공단은 지난 5일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 대·중소기업 대표 35인으로 제2기 공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 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 하도급 및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강화와 신용상대 조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도급사의 재무상태를 사전 인지하여 하도급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직불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건설산업 참여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품질 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2건 → 7건)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제품인 전철급전용 몰드변압기 등 2건의 성과공유제 도입과,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하여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R&D 자금을 3년간 25억원을 조성하여 금년에 테크릿 용재의 국산화, 고속철 열연구분장기 개발 등 연구과제 3건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생발전 아카데미 확대, 공단 보유 연구시설 및 자재를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동반성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중소기업간 상호 호혜적 지원과 협력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동

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행복한 공존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단은 금년에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의 해'로 정하고 "Clean KR"을 만들기 위해 금품 및 향응 등 1회의 사소한 부패 행위에도 입찰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One-strike out제를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관행 개선 등 스스로 정화시키는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청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업 스스로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청렴의식과 공단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발주자인 공단에서는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단의 PQ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앞으로 동반성장 및 성과공유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139개사의 1차 협력사와 1,650여건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2, 3차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과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 실천 우수 협력사,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철도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추진

- 공단, 승강장 지붕 등 566개소 대상 사업주관자 공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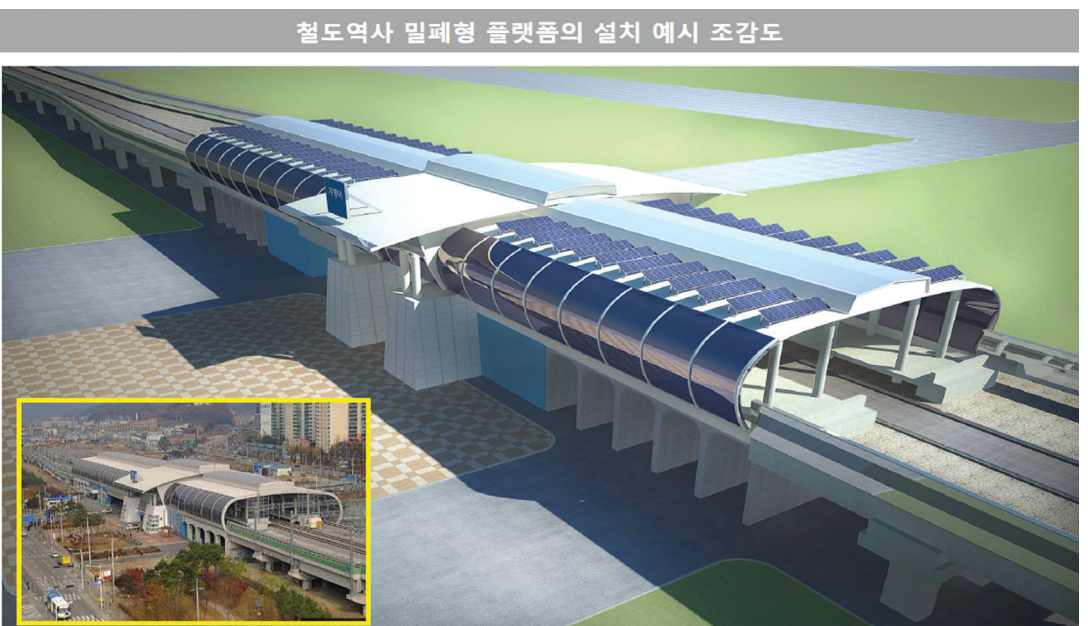
공단은 전국의 역사 승강장 및 차량기지 지붕, 사토장 등 566개소의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관자를 공모한다.

6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0일간 공모하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단이 제공하는 철도시설물에 사업주관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년간 운영하며, 사업기간동안 철도공단은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댓가로 약 200억원(1,233천㎡ 기준)의 점용료 수입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비가 절감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환경파괴가 전혀 없는 반면, 철도공단으로서는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철도시설물 건설비를 사업주관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철도건설비(약 80억원) 일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금년에 공모하는 시설물 전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5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여 연간 약 1,200만㎾의 유류 절약, 약 4만톤의 CO2 감소, 여의도 8.6배 면적인 2,497만㎡의 산림조성 효과와 함께, 16,650가구(4인 가구 기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 6,150만㎾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추진을 계기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에코그린 철도를 실현하고 최근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침체 위기에 봉착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7월 4일(수) 대전 본사에서 사업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를 9월 4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또는 자산개발운영부(042-607-4222~42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은 미국, 독일, 일본처럼 역사 및 승강장 지붕 일부개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체 운영 중 역사 승강장 등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 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철도공사 공동 협약 -



감사실(감사 성낙준)은 지난 6월 28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공동 협약을 통하여 3개 기관 감사실은 ▲합동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감사기법과 정보 교류 ▲전문 분야별 감사인력 지원 및 교차감사 실시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하여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감사업무 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대전에 소재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서 기관 별 주요사업 분야에 특화된 감사기법 및 감사사례를 전파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방만경영 예방활동 강화 등 내부감사 기능을 고도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감사실 신우정 기자>

공단, 금년 예산 65.7% 상반기에 조기집행

- 3조 7,358억원 집행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 -

공단은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중 65.7%인 3조 7,358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당초 목표액 3조 7,028억 원(12년 사업비의 65.1%) 보다 330억 원을 초과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조기집행의 관건이 사전준비에 있다고 보고 '12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회계연도 개시전인 '11년 말부터 예산배정과 계약체결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자체 상시점검체계인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초부터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부진사업이나 현안 발생시 특별히 집중 관리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로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65.1%를 초과달성 하였다.

공단은 사업비 조기집행 초과달성으로 상반기에만 7.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 4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하반기에도 공단은 조기집행 점검시스템을 이·불용 최소화 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특별관리하는 등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생산유발효과 (2.04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7.1명/10억원)	비고
2012년 효과	11조6,031억원	9만 7,264명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08)
(상반기)	7조6,210억원	6만 3,885명	

공단, 2012년 경영품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20건의 우수사례로 1,376억원 절감 -

공단은 지난 3일 임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경영품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이날 포상한 우수사례 11건은 지난 1년간('11년 7월부터 '12년 6월까지) 공단이 추진해 온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혁신활동 ▲합속공

동체인 배움두레(CoP)를 활용한 지식활동과 현장개선 ▲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국민에게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및 동반성장 활동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 Zero의 청렴과 윤리경영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영품질 활동 중 대내·외에 성과를 공유하고 자랑할 만한 사례 120건을 발굴하여, 그 중 직원 참여도 ▲창의성·파급성·성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성공사례의 공유를 통해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임목폐기물을 파쇄·소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파쇄 후 조경용, 퇴비용 등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하도록 하여 철도건설사업 분야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1.2억 원을 절감한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사례와 ▲사내 지식활동의 기반인 배움두레(CoP)를 통해 임대부지를 추



가 발굴하고 허가방법을 변경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연간 9.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성과 ▲토지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 개선 및 잔여지 매수 세부기준 정립, 수용확인서의 전산발급 등을 통해 용지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렴도가 상승한 사례 ▲차량분야 협력사의 VOC를 계약단계부터 적용하여

잠재적인 불만사항을 제거하고 SNS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고객응대사례 등 최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11개 유공부서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김광재 이사장은 "경영품질 우수사례를 소직원이 공유하여 임직원의 혁신의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철도기관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전사적인 창의혁신 활동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급,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우수사례들을 8월 중 'KR 혁신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